

지역 소식통

정읍시, 숨은 맛집 SNS

인증하면 지역화폐 쓴다

정읍시가 지역 내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시민이 직접 방문해 결제한 후기를 SNS에 인증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돈내산 탐방기 이벤트'를 11월까지 진행한다.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 제과점을 이용 후 촬영한 인증 사진과 해당 월에 결제한 영수증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이후 정읍시 공식 SNS 채널이나 누리집에 안내된 정보부나(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영수증 금액에 따라 2만원 이상일 경우 5000원, 5만원 이상일 경우 1만원의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울러 4월부터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맛인정첼린지'도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최대 8회 제공

정읍시가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20일간 총 8회의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나 진단서, 소견서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북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년에 한 번, 120일 동안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1회당 상담 단가는 제공 인력의 전문성 자격에 따라 1급은 8만원, 2급은 7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겨울' 전세계에 알렸다

글로벌 청년캠프 1억6000만원 경제 효과... 40개국 80명 참여·SNS 200만회 노출



여기에 두 기수가 14일간 지역 식당과 시장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식비 4500여만원(기수당 약 2200여만원)을 비롯해 기념품·특산품 구매, 교통·생활·관광 연계 소비 등을 합친 직접 소비 유발 효과는 총 6000여만 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방송·언론 보도 노출로 인한 환산 가치 약 6000만원을 더하면 이번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 파급효과는 1억 6000여만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참가자 1인당 평균 경제 기여도는 약 200

만원 수준으로, 단순 방문형 행사가 아닌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구조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축제형 관광과 결이 다름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캠프는 겨울철 비수기와 공공시설의 유휴 기능을 결합해 숙박 가동률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찾는 관광객에 숙박비 지원한다

1박 최대 7만원·2박 이상 17만원 한도 내... 5월 1일까지 추진

부안군은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안, 하루 더 살아가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며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여행 전 '부안사랑인'에 신규 가입하고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은 뒤 참여할 수 있다. 승인 후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안사랑인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숙박비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숙박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박의 경우 최대 7만원, 2박 이상은 최대 17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숙박비를 지원한다. 숙박과 함께 가맹점 이용을 연계해 지역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확산되도록 설계했다. 참여자는 숙박 외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가맹점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SNS 인증을 통해 지역 홍보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실질적인 여행 혜택을 받고 지역은 소비 확대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는 구조다. '부안사랑인'은 부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활인구 플랫폼으로 관광·축제 정보 제공과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방문객을 일회성 관광객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인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이번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안사랑인 가맹점 이용 후 인증 시 상품권을 증정하는 '영수증 숙박인인증', 축제·행사와 연계한 현장 가맹 이벤트 등 후속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 '만전'

부안군, 간부회의서 군정 전반 기본사회 관점 점검... 새만금 산업변화 대응·미래산업 선제 대응 강조

부안군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준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정 전반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모색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회의에서 "정부가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책임지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기반 정책을 결합한 바람연금 기반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서는 기본사회 관점에서 추진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표된 새만금 개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을 AI와 수소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향이 제시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새만금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전면 시행

사전 현장 탑승 점검 완료

정읍시가 오는 4월 1일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안정성과 시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현장 탑승 점검을 마쳤다.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교통과 직원들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주요 구간의 소요 시간과 환

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고려해 환승 대기 시간의 적정성과 노선 간 배차 시간 연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는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전용 환승 시스템을 구축과 하차 단말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버스에서 내린 뒤 60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를 탈 경우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단, 무료 환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시범 운행 기간을 갖고 시스템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종 점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고3 운전면허지원금 지급

총 100명에게 총 3000만원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재)고창군장학재단이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비 2차분 지원금으로 100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관내 학생 및 청년 역량강화 차원에서 기사·기능사 자격증과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전면허 지원금'은 전체 3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1차분을 지급한 데 이어 면허 취득 시점이 연말을 넘어가는 고3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3월초 2차분을 지급해 총 100명의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취득을 함께 축하했다. '기사·기능사 분야' 역시 큰 호응

을 얻었다. 지난해 접수 결과 단기간에 109명이 신청하여 조기 마감되었으며, 예산 범위에 따라 69명을 선발해 총 2000만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했다. 재단은 자격증 취득이 취업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 경제적 제약없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대학생들이 취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비용을 2배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